

플랜트 수출 갈수록 “막막하다”

2002년 1-6월 47억달러로 9.4% 감소 … 중동수출은 24억달러로 급증

고유가 지속에 따라 중동지역 산유국들이 석유·가스 개발투자를 늘리면서 중동지역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플랜트 수출이 호황을 맞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해외플랜트 수주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은 2002년 상반기 현대건설이 12억달러에 이란 사우스파스 4·5단계 프로젝트를, 대우건설이 1억9000만달러에 리비아 서부 가스플랜트 부대시설공사를 수주하는 등 중동지역에서만 23억8000만달러의 플랜트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상반기 16억2000만달러에 비해 46.9% 늘어난 것이며, 2000년 한해동안의 수주액 20억8000만달러 보다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해외수주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사이에 31.2%에서 50.5%로 높아졌다.

반면, 전체 해외수주액은 아르헨티나 외환위기에 따른 중남미 플랜트 시장의 침체로 52억달러에서 47억1000만달러로 9.4% 줄었다.

해외플랜트 수주동향

(단위: 100만달러)

구 분	2000		2001		200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수주 실적	5,520	2,880	5,200	4,940	4,710

산자부는 하반기부터 고유가로 여유자금을 확보한 산유국들이 자원개발분야 외에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발주도 늘릴 것으로 예상돼 중동지역 수주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동지역 플랜트사업 중 국내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란 사우스파스 가스전 6·10단계 개발사업(27억달러), 오만 소하 정유시설(7억달러), 쿠웨이트 사비야 담수설비(2억5000만달러), 리비아 자위야 복합화력발전소(3억달러) 등 39억5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주요 관심 프로젝트

(단위: 100만달러)

구 분	프로젝트명(국가)	발주액
중 동	South Pars 가스전 개발 6·7·8 단계(이란)	1,200
	South Pars 가스전 개발 9·10 단계(이란)	1,500
	Sohar Refinery 플랜트(오만)	700
	Sabiya 담수플랜트(쿠웨이트)	250
	Zawiya 복합화력발전 플랜트(리비아)	300
아시아	Mathura Refinery 플랜트(인디아)	320
	송클라 가스분리 플랜트(타이)	200
아프리카	Erha 부유식 원유생산 플랜트(나이지리아)	700
	Agbami 부유식 원유생산 플랜트(나이지리아)	650
	Shell South Forcados 가스처리 플랜트(나이지리아)	300
중남미	Minatitlan 정유공장 증설 프로젝트(멕시코)	1,000
	PEMOSA 폴리에틸렌 플랜트(멕시코)	200

산자부는 월드컵 이후 국가 이미지 향상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이자·보통비용 절감으로 수주여건이 많이 개선돼 고위급 민·관 합동수주단을 파견하는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7/ 22 >